

2018년 1월 19일
 emerics@kiep.go.kr

필리핀,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본격 시행



필리핀 정부가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함.

-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 및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을 시행함.
 -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(16.6 취임)이 ‘촉진 및 포용을 위한 조세개혁법(TRAIN: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)’에 서명함에 따라 조세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.¹⁾
 - 정부는 ‘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(CTRP: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)’에 따라 총 5단계에 걸쳐 조세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며, 이번 조세개혁법(TRAIN)은 그 중 1단계임.
 - 정부는 간접세 인상·신설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한편, 개인소득세 면제를 통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.
 - 조세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△ 소비세 인상(석유제품, 담배, 자동차, 광물제품 등) 및 도입(석유제품, 설탕함유 음료 등) △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개인소득세 면제 등임.

1) RA 10963.

표 1. 촉진 및 포용을 위한 조세개혁법(TRAIN)의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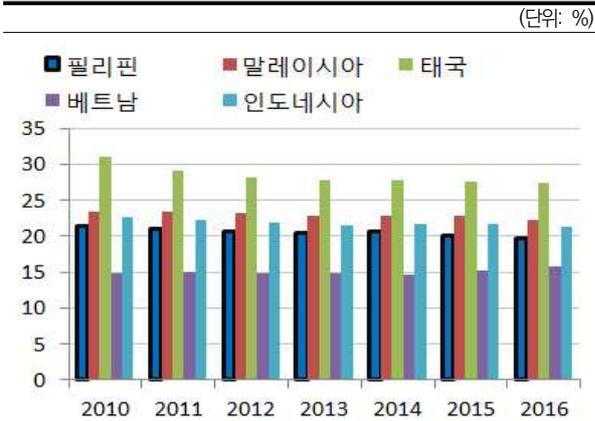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
소비세 인상·신설	· 인상 품목: 담배, 석유제품(휘발유, 가스, 나프타 등), 자동차, 광물제품(석탄, 코크스, 비금속광물, 구리, 금, 크롬 등) · 신설 품목: 석유제품(등유, 경유, LPG, 벙커유), 설탕함유 음료 등
개인소득세 부담 완화	· 연소득 25만 페소(약 5천 달러) 이하 개인소득세 면제 · 연말 성과급(13th month pay) 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 : 8.2만 페소(약 1,632달러) → 9만 페소(약 1,791달러)
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기준 상향	· 부가가치세(12%) 면제 대상 기업 매출기준 상향 : 연매출 192만 페소(약 3.8만 달러) → 300만 페소(약 6만 달러)
기타	· 이자소득세 인상, 인지세 인상, 필리핀복권위원회(PCSO) 복권당첨금 세금 신설(1만 페소 이상인 경우 20%), 증권거래세 인상(주식 매도시) 등

주: 달러당 50.24페소(2018.01.09. 15:08 KEB하나은행 고시기준).
자료: RA 10963 및 현지 언론자료 종합.

□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해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‘인프라 건설의 황금기(Golden age of infrastructure)’ 추진 자금을 확보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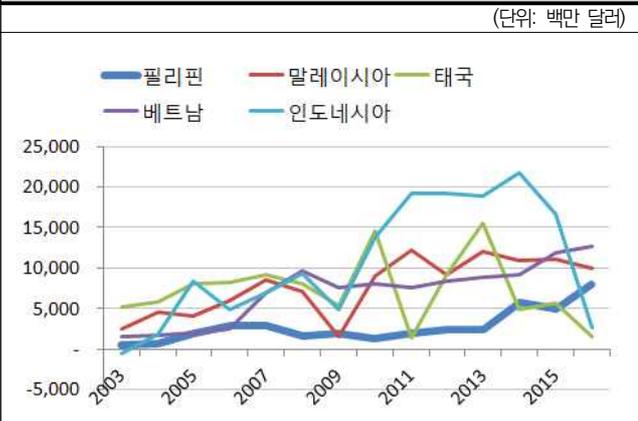
- 필리핀은 낙후한 인프라로 인해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발달이 지연되고,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저조한 바,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함(그림 1, 2 참고).
- 2017~18년 세계경쟁력지수(Global Competitiveness Index)의 인프라 부문 순위를 살펴보면, 필리핀은 전체 137개국 중 97위를 차지하며, 주변국에 비해 저조한 순위를 기록함(말레이시아 22위, 태국 43위, 인도네시아 52위, 베트남 79위).²⁾
- 전임 아키노 정권에서 부족한 재정을 감안해 민관협력(PPP) 중심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미하여, 현 정부는 민관협력보다는 정부예산, 원조, 상업적 차관 등을 활용하여 중앙 정부 주도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.
- 두테르테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임기 6년(2016~22년)간 8조 4,000억 페소(약 1,682억 달러)를 지출하고자 하며, 이는 6년간 총 GDP의 7% 규모임.

그림 1. 동남아 주요국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



자료: World Development Indicators.

그림 2. 동남아 주요국의 FDI 유입액 추이



자료: UNCTAD Stat.

2) 세계경제포럼(WEF).

□ 조세개혁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.

- 이번 조세개혁 시행으로 정부는 2018년에 900억 페소(약 18억 달러)의 추가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(EIU).
- 2017년 조세수입이 1조 8,300억 페소(약 366억 달러)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, 1단계 조세개혁 시행으로 2018년 조세수입이 5%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(EIU).
- 향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우리 기업 및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. **EMERiCs**

참고자료

EIU, Nikkei Asian Review, Philippine Star, Rappler, UNCTAD, 세계경제포럼(WEF) 등
(작성 : 신민금 전문연구원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)